데스크 시각

# 윤장현 광주시장의 커밍아웃

채 희 종
사회 2부장

상당수 광주 시민들은 얼마 전 윤장현 광주 시장의 느닷없는 '고백'에 당혹감을 느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9월 23일 오전 7시 윤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이 위암에 걸린 사실과 수술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위에 1㎝가량의 조기 위암이 확인돼 복강경으로 절제 수술을 한다. 시민은 살림을 맡긴 일꾼이 어떤 상황인지 알 권리가 있다." 4200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윤 시장의 고백을 퍼 날랐고, 오후부터 언론 매체를 타면서 널리 알려졌다. 윤 시장 페이스북 격려 답글에는 이날 하루만 '좋아요'라는 글이 849건이나 달렸다.

이어 25일 오후 윤 시장은 복강경 시술을 받은 뒤, 링거를 맞으며 회복 과정에 있는 모습과 글을 또다시 SNS에 올렸다. 이날 '좋아요' 답글은 무려 1297건이었다. 퇴원 날인 30일 오전에도 퇴원에 즈음한 소감과 사진을 올렸고, 토요일인 10월3일에는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참여했다.

### 위암 수술 시민에 공개

윤 시장의 고백 당시, 일각에서는 '오버액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고 상당수가 신선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임이 밝혀지면서 윤 시장의 고백은 위암을 둘러싼 소문과 억측을 일소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정치인이나 단체장이 지병이나 발병 사실을 공개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라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상례다. 우선 유권자들의 입살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 견제 세력이나 반대 세력들에게 약점을 잡힐 것을 우려해 둘러대거나 숨기기도 한다.

윤 시장은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게 행정의 키워드를 '정직'과 '시민'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집약해 주문했다. 그는 공복으로서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자신의 발병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직한 행정이라는 생각에 커밍아웃을 했다고 설명한다. 취임 초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섬기는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윤 시장은 각종 회의 때마다 "최선의 정책은 정직이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직을 버리는 행정은 안 된다"고 역설해 왔다.

그에게는 1998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시절 강진군과 함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인 '다산 목민 아카데미'를 2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때 정직을 바탕으로 한 신뢰행정이 공무원의 덕목이라고 설파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에 크게 영향 받았다고 한다.

### 정직 얽매여 추진력 잃을수도

이렇듯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직'에 집착하는 것은 역대 시장과는 다른 그의 이력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이 기본인 시민운동가이자 의사라는 직업이 행정에서마저도 효율성보다는 정직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

현실에서 정직한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우리는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 정직 대신 실적을 택한 결과가 초래한 엄청난 결과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축소 발표됐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와 승소 효과를 부풀린 제2순환도로 소송 결과 고백, 갬코 사건 사과 등은 정직행정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직과 시민 위주를 행정의 원칙으로 삼자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행정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직을 버리고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직에 얽매여 결정을 미룬다면 되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과도한 의견 수렴은 추진력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이해관계에 휩쓸려 지역에 반목을 불러올 수도 있다.

행정은 종합예술과 같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는 이가 있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는 이도 있는 법이다. 모든 이의 찬성을 이끌어 내고자 집착하는 것은 정직을 넘어 결벽증일 수도 있다. 신중한 자세는 자칫 무소신으로 비치기도 한다.

시장 임기도 이제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도시철도 2호선, 신세계 복합랜드마크 시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윤 시장의 확실한 방향 설정과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社 說

# 1년 넘게 악취…주민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광주시 서구 유덕동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7백억 원의 거액을 들여 건설한 시설에서 법정기준치를 최대 네 배 이상 초과한 악취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공사와 운영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애꿎은 주민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인 광주환경공단은 당초 지난 12일까지 기준 이하로 악취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어긴 채 시설 개선을 이유로 광주 서구청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 기준치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 두 차례 이상 개선 권고를 받고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6월 준공 이후 4개월 만인 10월께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서 부실설계, 부실시공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후 두 차례 주민 항의에 따라 서구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악취방지법상 기준치인 '희석배수 500배' 이내를 6배 이상 초과한 최대 '희석배수 3000배'의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주민들은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라며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어정쩡한 태도다. 광주환경공단과 시공사가 서로 잘못이 없다며 우기고 있지만 양측의 눈치만 살필 뿐 시원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악취 배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준공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운영상 실수로 악취가 높아진 것인지를 명쾌하게 밝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꾸 핑계를 꾸밀 시간을 주고 질질 끌다 보면 행정의 신뢰만 땅에 떨어질 것이다.

# 뻥 뚫린 '달빛고속도로' 동서 교류 기대된다

잦은 사망 사고로 인해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다음달 말 확장돼 조기 개통된다. 그동안 운전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2차선 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시원스럽게 뚫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서 교류 확대 등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 전 구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기존 2차로가 4차로로 뚫리게 되며 광주~대구 간 운행시간도 기존 132분에서 102분으로 30분이 단축된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1984년에 개통돼 대구 달성군 옥포면을 기점으로 거창·함양·남원·순창을 거쳐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서 호남고속도로와 합류해 광주까지 이어진다. 도로가 건설 중이던 1981년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 것을 기념해 '88올림픽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이 도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함에도 왕복 2차로로 건설돼 각종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2명이 죽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 2008년 확장 공사에 착수한 이 고속도로는 2013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찔끔' 공사로 진행되다 이번에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완공과 함께 앞으로 88고속도로란 명칭도 바뀌게 된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 지자체가 나서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특히 광주와 대구는 지난 2013년 '달빛동맹' 협약을 맺고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차선 확장 개통과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계기로 영호남이 맺은 '달빛동맹'이 더욱 확고해지고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

# 변화하는 북중 관계

김 병 인
서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월10일 북한은 평양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거행했다. 대개 열병식은 대내외적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행한다. 국제 경제 경쟁에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열병식에는 그 나라의 각종 최신 무기가 등장한다. 북한도 열병식에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키웜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북한의 무기가 아니라 시진핑의 친서를 휴대한 것으로 알려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의 행보였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시진핑 총서기가 보낸 친서를 전달했다. 인민일보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는 친서에서 "조중의 전통적인 우의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창건하여 물심양면으로 가꾼 양국 공동의 소중한 재산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조중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전략적인 차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중 관계 발전을 대하고 다루는 한편 양국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며 발전시키는 것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는 조선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조중 관계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류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부각하면서 고위급 정치대화, 경제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고, 이에 따라 이후 북-중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냉각돼온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북중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대북, 대중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로 표현한다. 중국의 굴기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남해로까지 확장되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북한의 안정은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일관되게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동맹관계인 북한과는 유일하게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맺은 것이기에 혈맹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중국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을 폄하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근본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에 한반도가 전화에 휩쓸리면 중국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엄청난 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이 북한을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불평하지만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미군이 압록강변에 주둔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 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우선 현실적 군사 위협 앞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하고 안보의 위협 앞에서 중국의 꿈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 북한의 핵, 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외교 안보 면에서도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다. 만약에 중국이 혈맹인 북한을 포기하면 어떤 국가도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만약에 북한에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여러 이유로 개입할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핵우산 아래 북한이 들어와 중국의 핵보장을 받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나서기를 바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순망치한이라는 근본 관계 위에서 중국의 굴기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 이순신 동상

선현(先賢)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동상의 주인공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일 것이다. 장군의 동상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해남 땅끝 울돌목까지 전국 주요 장소에 세워져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정에까지 자리잡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충무공 동상이 세워진 곳은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경남 창원이었다. 1952년 4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북원 로터리에 세워진 국내 1호 충무공 동상 제막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했다.

가장 상징적인 충무공 동상은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사거리에 있다. 1968년 4월 27일 전체 높이 17m(동상 6.5m, 기단 10.5m)의 청동 입상 형태로 건립됐다. 광화문 사거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였다. 세종로와 태평로가 뻥 뚫려 있어 남쪽 일본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를 억누를 필요가 있었다. 일본이 가장 무서워 할 인물로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만 한 사람이 없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의 얼굴이 통일된 것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충무공 동상을 통일된 영정에 의해 세우도록 지시하면서부터다. 이후로는 현충사에 봉안돼 있던 월전 장우성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기본 모델이 됐다.

전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충무공 동상은 6개다. 진남관 입 로터리와 자산공원 등 여수에 2개, 목포 유달산, 강진 금강사, 울돌목을 사이에 두고 해남 우수영과 진도 벽파진에 1개씩이 있다.

명량해전의 무대인 울돌목에 있는 2개의 동상은 국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진도 벽파진 동상은 높이 30m로 충무공 동상 중 최대 규모다. 일명 '지휘하는 이순신'으로 오른손을 치켜든 모습이 왜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위압적이다.

해남 우수영 동상은 실물에 가까운 2m 크기로 국내에서 가장 작다. 갑옷과 칼 대신 도포를 입고 지도를 든 유일한 동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다. 해남군이 이 동상을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 상'이란 이름으로 상표 등록했다. 충무공 동상으로는 상표 등록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도대교를 오갈 때 두 곳의 충무공 동상을 비교 감상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기 고

#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교육

전 상 훈
광주 첨단고등학교 교장

사람은 어떨 때 고개를 숙일까. 대개 무언가를 잘못해서 부끄러울 때, 아니면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다. 그렇다면, 수업 시작 10분도 안되어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을 청하는 이 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배움의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높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 찬 미래를 향한 부푼 꿈에 가슴이 뛰어야 할 이팔청춘의 나이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그리도 잘못해서 고개 한번을 들지 못하고 수업에서 소외당해야 하는 것이며, 어른이 되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끝 모를 열패의 수렁에서 허우적대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굳이 찾으라 한다면,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 일 뿐. 학업성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 상, 집안형편이 넉넉하고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수는 없는 처지다. 직업관련 기술을 배우고 익혀 사회에 일찍 진출하고파서 특성화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지만 그것마저 치열한 경쟁에 밀려 결국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반계 고교로 배정받은 아이들.

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 국·영·수 같은 도구교과의 학습결손이 지속되다 보니,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입시 공부에 치중하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따라갈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수업을 듣는답시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고통일 밖에. 대학 문턱이라도 밟아야 사람대접을 받는 세상이기에 문·이과 적성이 아니다 싶으면 예·체능 쪽으로라도 진로를 잡고 발버둥 쳐 보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란!

아이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고,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 가슴 아프다. 불합리한 교육정책과 제도 때문에 꿈도 목표도 없이 어린 나이를 한숨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들을 특목고와 자사고에 다 빼앗긴 채 중·하위 집단의 학생들만 가지고 대학 진학률을 높여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반계 고교 선생님들의 고충과 힘겨움을 지켜보는 일 또한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거의 일상화 되다시피 한 '면학분위기의 실종'은 단순히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 일부의 학습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MB정부 시절 추진된 고교다양화 정책이 그 당시에는 나름의 논리와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됐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고교 서열화, 일반고의 슬럼화와 같은 정상적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하는 폐단을 낳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제라도 정부는 입시제도에 대한 혁신과 함께 고교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에서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고교입학제도 개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점에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 이와 관련, 유념할 것은 그것들이 일시적 땜질과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전반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처방과 대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들 삶의 본질이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행복의 성취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 설계를 가름하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에서 더 이상 소외를 겪지 않고, 저마다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해 본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 팩스 062-222-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